

북한개발소식

2025 JAN

01

통권 231호

이달의 주제

북한의 인권 상황과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

탈북민 수기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4)

북한뉴스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상자
1100명 달해…장성급 사망”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의 인권 상황과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5 JAN

이달의 주제 :

북한의 인권 상황과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

- 권두칼럼** **01** 북한의 인권 상황과 기독교 박해에 대한 우려와 기도
- 칼럼_1** **10** 이상용_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종교 자유 막을 수 있나?
- 칼럼_2** **15** 정베드로_ 국제사회의 보호책임과 북한인권 개선 과제
- 칼럼_3** **20** 하광민_ 기독교적 관점에서 북한인권 이해하기
- 탈북민 수기** **27** 김열매 성도_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4)
- 서평** **32** 탈북민 트라우마 이해
- 북한뉴스** **34**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상자 1100명 달해...장성급 사망”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선교사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



2024년 한 해 동안 북한은 세계 언론 보도에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였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로의 파병을 결정함으로써 이미 장기화 되어버린 러우 전쟁의 종식에 대한 희망이 급감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세계의 눈은 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가지는 북한을 향했다. 이를 의식한 것인지 북한은 기존 영변 핵시설 외에 강선에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핵시설을 공개하고 자신들이 최종완성판이라고 일컫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의 시험 발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국가 경제 유지와 핵무기 개발 및 유지에 필요한 재정적 도움,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북 제재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높아졌다.

이렇듯 지난 한 해는 국제 정세에서 북한이 주목을 받았던 해였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모인 시간이었다. 먼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공신력 있게 고발하고 북한의 변화를 추구했던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2014.2.17.) 10주년을 맞는 해로서 보고서 작성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 북한 인권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는 시도들이 있었다. 또한 유엔에서 4년을 주기로 나라별로 진행되는 정례 인권 검토(UPR)가 북한을 대상으로 24년 11월 진행되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보는 북한 인권 문제는 개선이 되었을까? 특히 북한의 기독교 박해

는 완화되는 조짐이 있었을까?

이 글에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북한의 최근 인권 상황을 기독교 박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에 대한 기도를 촉구하고자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2024년 한 해 동안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환기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차원에서의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2014년 발간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¹의 10주년을 맞아 여러 관련 기관들의 그간의 북한의 인권 개선 실태를 평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 중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COI 발표 10년을 정리하는 보고서는 현재 북한 인권에 대해 “일부 개선된 인권 분야도 있지만 더 심각해진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법·제도와 정책, 그리고 여러 행정기구를 통한 사회통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신규 법제 제·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²

24년 11월 진행된 제 4차 북한에 대한 보편적정례인권검토(UPR)에 담긴 최근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도 통일연구원의 지적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북한인권정례검토에서는 북한이 1~3차 UPR에서 계속 거부했던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방북, △북한 내부 접근 협조, △성분 차별 철폐, △정치범 수용소 폐지 등 권고를 포함해 억류자·납북자 귀환, 러시아 전쟁 지원 중단이 비중 있게 다루어졌다. 또한 북한의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철폐 및 강제복송 탈북민에 대한 인권 침해가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한국 정부는 4차 북한 UPR 권고발언에서 억류자와 강제송환 탈북민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고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신속한 석방을 촉구하였다. 또한 여러 국가들이 2020년 이후 북한이 주민통제 목적으로 제정한 3대 악법이 인권 실태에 미치는 영향과 폐지 계획,

북한 내 여성·여아 인신매매 및 성폭력 문제 등에 관심을 나타냈다.

11월 20일에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20년 연속 유엔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채택되어 12월 17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에는 올해 초 통일을 부정하며 밝힌 적대적 2국가론과 3대 악법에 대한 비판 등이 처음으로 담겼다. 이 외에도 24년 1월 실시된 중국에 대한 UPR에도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국, 체코, 영국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복송 문제를 직접 제기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에 대한 북한을 위시한 관련국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북한은 UPR에서 제시된 권고사항 294건 중 88개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주요 거부 사항들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 △공개처형 중지, △성분 차별 철폐, △강제송환 된 사람들에 대한 고문 중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 중지, △표현의 자유 보장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평양문화어보호법·청년교양보장법 철폐 등이다. 중국 역시 UPR에서 제시된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등에 관한 권고 사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불법 입국한 북한 출신자는 난민이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³



〈2014년 2월 북한인권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는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

3대 악법, 강제 복송... 심각해지는 북한 인권 문제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여러 전문적인 연구와 국제사회의 결의안 등을 살펴보면 북한 인권 문제가 개선되기 보다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위시한 사상문화통제 법률과 강제 송환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적대적 2국가론에 따른 억류자·납북자 귀환 문제 및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1 유엔 차원에서 발표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가장 권위 있는 보고서로 평가되는 해당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을 상대로 대규모의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행위”를 자행해 왔으며, 반인도범죄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저질러 왔고, 이러한 잔혹한 행위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저질렀던 범죄와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 이무철 외, 「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서울:통일연구원 (2024.07.15.),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p.5

3 중국, 유엔서 ‘탈북민 보호’ 권고 거부, 자유아시아방송RFA, (2024.07.05.),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repatriation-07052024095738.html>

3대 악법이라 불리는 북한의 사상문화통제 법률들은 최근 북한 인권 상황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문제로 꼽힌다. 해당 법률들의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그 단속과 처벌 수위만 보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보여준다. BBC코리아는 샌드연구소를 통해 입수한 북한의 주민학습 영상에 대한 보도를 통해 한류 미디어를 접했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는 북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로 가득 찬 평양시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죄수복을 입은 삼마고급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폐했다는 죄목으로 수갑을 채우고 12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⁴ 미성년자들에게 특정 미디어 시청을 죄목으로 10년이 넘는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형 집행 사례도 확인된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자 증언을 인용해 2022년 황해남도의 한 광산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제정)을 근거로 22세 농장원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원은 괴뢰(남한) 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으며, 이를 7명에게 유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⁵

이러한 북한의 주민 통제 강화 활동이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이 법령에 따라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시기 북한은 ‘법제정법’ 채택 등 입법의 체계와 내용이 정비되고 다양한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에 의한 통치(rule of men)에서 법치(rule of law)로 나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⁶ 법치는 누구나 평등하게 최고의 권위를 갖는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에 인권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북한의 법체계가 정비되는 모습에서 북한 사회의 개선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현재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법의 제정과 적용이 이러한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법치의 진전이라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당국이 자신의 필요와 입장에 따라 법을 도구로 이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인권정보센터 발간 2024 북한인권백서는 북한이 법치, 즉 ‘법의 지배’(rule of law)가 아닌 법 위에 군림하는 국가권력이 법을 자의적으로 만들고 집행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의 모습을 보이

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법률 시스템을 자의적으로 사용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어 “현재 북한의 사법제도는 인권 중심적인 법은 묵살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법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고 꼬집었다. 북한이 개인의 권리 보호 및 적법한 절차에 관한 법률은 수시로 무시하지만, 자유를 억압하는 법률은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⁷

소위 3대 악법으로 불리우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으로 상징되는 북한의 사상 통제법과 제도는 문화 풍조 영역에서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억압이 특정 시기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만큼, 앞으로도 한류 문화를 매개로 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는 강도 높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강제 송환에 따른 인권 침해는 코로나19 이후 주목해야 할 북한의 주요 인권 침해 이슈이다. 탈북자 강제 복송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수년간 중단되었으나, 2023년 10월 북중 접경에서 수백여 명의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면서 다시금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해당 복송 이후에도 탈북자 복송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24년 4월에도 2백여 명 규모의 탈북자 강제 송환이 이루어졌다는 여러 정황이 있었다.^{8,9} 이제는 강제 복송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같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모습이다.¹⁰

탈북자 강제 복송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복송된 이들에 대해 북한 당국이 취하는 태도가 매우 적대적이고 인권유린적이기 때문이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는 “강제복송과 조사 과정에서 복송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기관원들이 가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으며, 여성 수감자에 대한 성폭력과 강제낙태도 자행되고 있다”고 그 실태를 전했다. 또한 “복송된 주민들은 ‘현



〈한국 드라마를 유폐한 중학생에 수갑을 채우고 12년형을 선고하는 장면이 담긴 북한의 ‘학습제강’ 영상 (BBC코리아=샌드연구소 제공)〉

4 북한, 한국 드라마 유폐한 중학생에 수갑 채우고 12년형...전례없는 처벌 강화, BBC코리아 (2024.01.16.), <<https://www.bbc.com/korean/news-67931606>>

5 “K-POP 들은 北 20대, 공개처형”...‘아빠·오빠·쌤’ 말투도 처벌, 중앙일보 (2024.06.27.),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9481>>

6 “北, 김정은 집권 이후 ‘법치’ 논의 본격화”, SPN 서울평양뉴스 (2022.08.14.),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04>>

7 북한인권정보센터, 「2024 북한인권백서」, 서울:(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024.10.08.), p. 309-317.

8 “中, 탈북민 200여명 강제복송”...반년만에 대규모 송환 재개, 조선일보 홈페이지 (2024.05.02.),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4/05/02/OIBSZVUP4NA2LA2HBC4CRF3CIY/>>

9 중국 정부, 탈북 난민 60여 명 강제복송시켜,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2024.05.08.), <<https://www.hrw.org/ko/news/2024/05/08/china-forcibly-returns-60-refugees-north-korea>>

10 [강제복송 그 후③] 탈북민 강제복송은 현재진행형, 데일리NK (2024.04.24.), <<https://www.dailynk.com/20240424-4/>>

지공개재판’을 통해 탈북한 이유를 비난받거나, 재탈북을 우려해 사생활을 감시당하는 등” 복송에 따른 처벌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권 침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¹¹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에서 다른 탈북민의 한국행에 관여하다가 붙잡혀 복송된 탈북자 두 명이 처형당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다.¹²

악화되는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타겟, 기독교와 지하교회

근래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에 대한 사상문화 통제 법률 제정과 단속 강화, 그리고 강제복송에 따른 인권 침해 문제 등은 공교롭게도 북한의 기독교인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먼저 소위 3대 악법이라 불리는 사상문화통제 법령에는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활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 29조에는 ‘미신전파죄’라는 명목으로 미신을 설교한 미디어를 접한 이들에게 5년 이상의 중형을, 유입·유포한 사람들에게는 최소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미신은 모든 종교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당 법령에서 말하는 ‘미신을 설교하는’ 미디어가 주로 어떤 종교의 것일까 생각해본다면 이 규정이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악법 중 하나인 청년교양보장법은 제 41조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16가지를 나열했는데,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와 마약 관련 행위 등과 함께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 중 세 번째로 ‘종교와 미신행위’를 거론하고 있다.

실제 기독교 박해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 보고서에는 근래 북한의 기독교 박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함경북도에서는 남한의 선교단체의 지원을 받은 마을 주민 12명이 구속되고 그 중 2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건에 대한 증언이 있었다. 또한 2019년 평양에서 지하교회가 적발되어 5명이 공개처형되고 7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약 100여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도 확인되었다. 22년에는 황해남도에서 가택수색중에 성경책이 발견되어 단속된 주민이 15년

형을 받았다는 증언이 수집되는 등 코로나 시기의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¹³

이러한 공식적인 연구 보고서 외에도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기독교 박해 사건 정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본 선교회가 파악한 몇몇 사건에 따르면 중국과 연계되어 있던 지하교회 수 곳이 적발되어 많은 희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대규모 실종의 형태로 확인되는 북한의 종교 박해 사건의 특성상 붙잡힌 이들의 행방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확인된 사건들에 의한 피해자 규모만 해도 적어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다수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탈북자 강제 복송 역시 기독교 박해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복송된 이들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기독교 신앙 유무나 교회 및 선교사 접촉 유무가 주요한 심문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러한 사실이 있을 경우 일반 복송자들에 비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통일부 북한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송환 이후 보위부 조사 과정에서도 종교행위 여부에 대한 추궁과 처벌이 이루어졌고, 중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독교 단체와 접촉했거나, 소지품에서 성경 등이 발각되는 경우 가중 처벌되었다는 공통된 증언이 수집되었다. 강제송환되어 보위부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동료 수감자가 성경책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독방에 수감되었으며, 총살 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도 수집되었다.¹⁴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진행된 강제복송과 관련하여 북한전문매체 데일리NK는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23년 복송된 이들 중 기독교 관련 단체와 접촉이 있었던 이들, 특히 성경을 들었거나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이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수감했다고 보도했다.¹⁵

북한 인권 개선과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한 한국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최근의 경향 외에도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북한의 공개처형과 정치

11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서울: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2024년 6월), p. 67.

12 “중국서 강제 복송된 탈북 여성 2명 처형”, 자유아시아방송RFA (2024.09.12.), <https://www.rfa.org/korean/in_focus/human_rights_defector/china-forced-repatriation-north-korea-execution-09122024153503.html>

13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pp. 280-281.

14 위의 책, pp. 281.

15 [강제복송 그 후②] 기독교 접한 사실 확인되면 관리소행, 데일리NK (2024.04.22.), <<https://dailyink.com/20240422-1/>>

범수용소 문제, 그리고 억류된 한국인들의 송환은 여전히 중요한 북한 인권 이슈로 남아있다. 그렇지만 해당 이슈에서도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와 개선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북한 UPR의 특이사항 중 하나는 북한이 공개처형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과 함께 간접적으로 정치범들에 대한 별도의 수용시설이 존재함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북한 대표단 일원으로 나온 박광호 중앙재판소 국장은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 공개처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누범자 중에서도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거나, 살인을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거나, 피해자 가족이 강력하게 공개처형을 원할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으며 “간첩이나 테러리스트 등 반(反)국가 범죄자와 사회주의에 대한 불만으로 체제 전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수는 많지 않다”면서도 “이런 범죄자들은 교화시설에 수용되고, 다른 범죄자들과는 분리된다”며 “교화시설 수용자들은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고, 신문을 읽을 수도 있다. 또한 수용자들에게 위생적인 환경과 운동 기회도 제공된다”고 주장하였다. 교화 시설에서 고문 등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지만, 정치범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수용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¹⁶ 그렇지만 북한은 UPR을 통해 제시된 정치범 수용소 해체, 공개처형 중지, 강제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고문 중지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수용을 사실상 거부하는 등 해당 문제의 해결 및 개선은 여전히 묘연한 상황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북한의 한국인 억류 문제도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북한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고현철씨를 비롯한 탈북민 3명을 억류하고 있다. 억류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의 억류 4천일이 되던 지난 24년 9월 20일 한국·미국·캐나다 3국 정부가 억류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으며, 최춘길씨의 아들 최진영씨가 아버지의 구명 활동을 위해 유엔을 방문하는 등¹⁷ 여러 방면에서 이들의 송환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UPR 권고도 사실상 거부하였다.

정치범 수용소와 억류자 문제 역시 기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인권

정보센터 2020북한종교자유백서에 따르면 탈북민 응답자 13,707명 중 46%가 넘는 6,408명이 북한에서 종교 활동시 받게 되는 처벌로 정치범 수용소 수감이라고 응답했으며 모름(38.6%), 교화소 수감(10%)이 그 뒤를 이었다.¹⁸ 북한에서 기독교인으로 붙잡혔을 경우 받는 주된 처벌 중 하나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된 한인들 중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나 선교사이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북한 인권 이슈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렇듯 북한 인권 침해 양상을 살펴볼수록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있음이 확인된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이 경험하는 인권 침해와 억압을 생각할 때, 신앙 양심을 따라 한국 교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직접 만나고 확인할 수 없기에 실감이 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관련 연구와 사례들 및 북한의 정책에서 확인되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기독교 박해는 엄연한 현실이며, 그 이면에는 지금도 부당한 차별과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25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과 기대로 새해를 맞으면서 그와 함께 우리가 혹시나 잊어서는 안 될 이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2025년에는 한국 교회가 박해받는 동포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더 큰 관심과 참여와 기도에 나설 수 있길 바란다. 🙏



〈북한 UPR에 참석한 박광호 북한 중앙재판소 국장(가운데)〉

16 北, 유엔서 '공개처형' 인정... "원칙은 비공개지만 예외도 있어", 연합뉴스 (2024.11.11.), <<https://www.yna.co.kr/view/AKR20241111056300009>>

17 [인터뷰: 북한 억류 선교사 아들 최진영 씨] “아버지 보고 싶어요...한국인도 미국인처럼 석방해 달라”, VOA (2024.04.02.), <<https://www.voakorea.com/a/7552422.html>>

18 안현민 외, 「2020북한종교자유백서」, 서울: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종교감시기구 (2020.10.31.), pp. 151-152.

반동사상문화배격법으로 종교 자유 막을 수 있나?

-참혹한 박해 실태와 우리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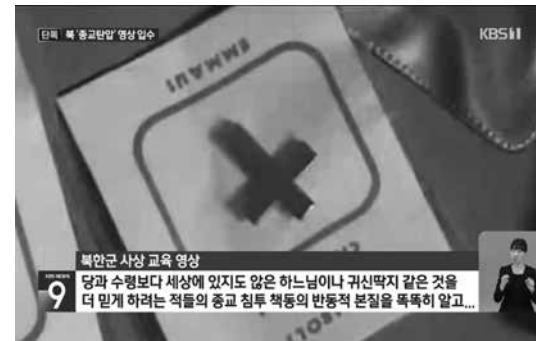
이 상 용 (데일리엔케이 AND센터 디렉터)

최근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참혹한 종교 박해가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28일 교황청 산하 국제 원조단체인 ‘고통받는 교회돕기’(ACN)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23년 중국에서 강제 복송된 탈북민 가운데 기독교를 접촉한 이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다. 또한 북한을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으로 살기 가장 최악인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에서 기독교인은 ‘적대 계층’으로 분류돼 끊임없는 박해를 받는다”고도 했다. 기독교를 접촉한 이유만으로 가혹한 처벌을 하고 있다는 우려이다. 또한 KBS는 지난 12월 2일 보도를 통해 ‘인민군 군사 과학교육 영화 촬영소’가 2010년 제작한 교육용 영상을 확보했다면서 수뇌부에 대한 충성심을 무너뜨리기 위해 남한이 종교를 침투시키고 있다며 신자들을 간첩으로 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헌법엔 ‘신앙의 자유를 표방하면서도 당국이 대놓고 종교를 탄압하는 영상을 제작했다는 지적이다.

사실 필자는 15년 가까이 북한을 취재하면서 ‘종교’ 문제에도 관심을 뒀었다. 2009년부터 3년 동안 중국 특파원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서 많은 선교사 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었다. 그 분들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북한 선교를 하였던 분들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친척 방문자들이 많았고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그 선교사 분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북한 종교 자유화와 관련해서 희생당한 모든 분에게 위로의 말씀 먼저 올리고자 한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채택과 종교 억압

최근 들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년 12월 제정)과 종교 자유화’



〈종교는 김 씨 일가 승배를 허물려는 책동이라며 종교인을 간첩으로 모는 북한의 종교탄압 영상 한 장면, 2010년 제작 추정 (KBS뉴스)〉

문제라고 판단된다. 이 문제를 짚어 보기 전, 먼저 북한은 여전히 종교를 체제의 위협이 되는 요소로 보고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미신행위보다 더더욱 종교 활동은 금지돼 있으며, 종교를 믿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국가 최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 사회가 김일성·김정일주의와 더불어 김정은 혁명사상(인민대중제일주의)이라는 교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절대 수령(태양)의 체제로 정의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수령 유일사상을 위협할 종교, 신념의 자유는 없는 것이다. 북한은 인가된 종교시설과 종교의식, 중앙종교단체(이 또한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외에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채택 후 종교 문제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북한은 외부 콘텐츠를 유입하고 시청하고, 혹은 유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 것인데, 또한 기기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문화적 요소까지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법을 제정했다는 할 수 있다.

이 법에 바로 종교 문제도 거론돼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제29조에는 ‘성노화물, 색정 및 미신전파죄’를 명시하고, ‘미신을 설교한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 사진, 그림과 같은 것을 만들거나 유입, 유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 평안북도의 한 농촌 마을에서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 ‘아이들 아프지 않게 해달라’라고 귀신과 하나님, 부처에게 집에서 물 떠 놓고 매일 빌었다는 여성 주민이 올해 4월 강연자료(도 선전부문일군 대상)에 나왔었는데, 이에 대한 당국의 평가는 ‘미신, 종교행위는 당(黨)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다른 공공의를 하는 반국가적, 국가 전복 음모죄나 같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북한 당국은 가족의 안녕을 비는 행위조차 종교 행위라고 인식하면서 이를 처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2021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²은 더 노골적이다. 제41조에는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종교와 미신행위’ 명시했다. 여기에서는 처벌 규정은 없지만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보면 미신행위를 담은 영상물 및 출판물 제작, 유입, 유포에 대해서도 미신전파죄로 규정하여 최대 무기노동교화형까지 명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면서 특이하게 많은 양이라면 ‘사형’이라는 조항을 넣었다. 여기서 미신이라고 규정하였지만 ‘종교’라는 요소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특히 청년들의 종교 활동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코로나

1 장승기 기자, 데일리엔케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최초 입수...” 어떤 계층 누구든 극형”, 2023년 3월 21일

2 <https://www.unilaw.go.kr/Index.do> 참조

제41조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1.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 범죄행위 2. 성(性)불량행위, 음탕한 행위, 매음행위, 도박행위 3. 종교와 미신행위 4. 불순출판선전물을 유입, 제작, 복사, 보관, 유포, 시청하는 행위 5. 마약을 제조, 밀매, 보관, 사용하는 행위 6. 훔치기, 빼앗기, 속여가지기, 횡령행위를 비롯하여 국가 및 개인재산을 약취하는 행위 7. 구타, 폭행, 패싸움을 비롯한 사회공동생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끼리끼리 몰려다니거나 패를 묶는(조직하는) 행위 9. 가정사정과 신병을 구실로 군사복무를 거부하거나 군사복무를 하지 않을 목적으로 조혼, 신체 검사와 생활 평정을 부당하게 받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도주하는 것과 같은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하거나 성실히 참가하지 않는 행위 10. 무직건달을 부리거나 조직생활에서 이탈되어 떠돌아다니는 행위 11. 우리나라 노래를 왜곡하여 부르거나 우리 식이 아닌 춤을 추는 행위 12.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 13. 이혼, 조혼을 하거나 사실혼생활을 하는 행위 14. 우리 식이 아닌 이색적인 옷차림과 몸단장, 결혼식을 하면서 사회의 건전한 분위기를 흐려놓는 행위 15. 저속하고 몰상식하게 행동하여 사회의 안정과 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 16. 그밖에 공화국법에 저촉되는 행위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을 나열한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 세 번째 항목으로 ‘종교와 미신행위’가 제시되고 있다. (통일부 2024 북한인권보고서, p. 58)〉

를 명분으로 주민 통제와 감시가 더 강화되었으며, 종교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기술도 적극 활용되고 있다.

철저한 감시 시스템 구축

그렇다면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가? 종교 문제를 감시하고 단속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주요 조직은 국가보위성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사회안전성, 각 지역 보안 기관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모두 당중앙위원회 방침과 당의 노선에 의해 집행되고 있다. 확실한 조직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민들의 전화 통화 및 내부망과 인터넷, 손전화(휴대전화), 전자기기 사용을 감시하고, 종교 관련 책자나 물품 소지를 단속한다. 코로나 이후로는 집집마다 출입을 통제하고, 종교 관련(미신 포함) 소문을 철저히 차단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세밀하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고 신고를 하면 상을 주겠다는 방식(2022년 7월 군중신고법)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

3 문동희 기자, 데일리엔케이, “개정 북 군중신고법 입수... ‘최고지도부

데일리엔케이가 최근 처벌 사례를 조사한 결과 그 ‘심각성’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평안북도 선천군 인암리에서 한 가족이 비밀 기도 모임을 가진 것이 적발, 비공개 처벌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가족 모두가 체포돼 국가보위성 산하 정치범 수용소 내 완전통제구역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여기서 북한 당국은 이를 보위기관에만 공유하는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이처럼 종교 관련 활동은 공개적 처벌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하는 모든 모임이나 활동(전도나 예배 활동)이 적발되면 당사자는 심각한 처벌(비공개 실내 처형, 정치범수용소)을 받는다는 전언이다. 또한, 가족들도 연좌제로 인해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내용이 과정과 절차 자체도 알려지면 안 된다는 내적 처리 규정이 있다는 지적이다.

종교 문제로 연좌제가 적용된 사례는 지속 포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평안북도 선천군 사례처럼 가족 한 명 때문에 가족 전체가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른바 가족 전체를 위협에 빠뜨리는 일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내겠다는 게 북한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23년 11월경 평양시에서 40대 후반 가정이 코로나 기간 물 떠놓고 비는 이웃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했다는 신고로 결국 체포됐다는 사건을 또 하나의 예로 들 수 있겠다. 당시 아들 2명까지 있었는데 결국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원래



〈억류된 김정옥 선교사에 대한 북한 매체의 보도 중 한 장면. 선교사가 소지했던 성경책이 주요 증거물로 보도되고 있다〉

기독교 집안이었고, 아버지가 코로나 때 손으로 쓴 성경수첩 3장이 집에서 나올 정도로 독신했다는 전언이다.

강제 송환과 종교 문제

ACN에서 지적했던 강제 송환된 탈북민과의 상관성도 주목된다. 이 경우 일단 종교인과의 접촉이 발각될 경우 경제적 동기에 의한 탈북보다 엄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2023년 말부터 본격화된 복송 작업 이후 북한에서는 강제 송환 탈북민을 대상으로 철저한 신원 조사와 심문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종교 활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인데, 전담관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성경을 읽어도 된다는 식으로 유도 질문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또한 외부와의 연락 기록에서 종교 활동을 적발하는 등 꼼꼼히 확인하기도 한다. 단어 하나 걸리면 바로 종교 문제 연루자로 취급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처음 언급한 강제 송환된 탈북민 중 종교 활동이 적발돼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신변 위협’ 신고 최우선”, 2024년 11월 18일

국제사회의 보호책임과 북한인권 개선 과제

정 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

인권이란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권리로써 출생부터 누구에게나 부여 받은 평등하고 동등한 권리이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출생과 생애의 목적은 바로 이 인간이 누려야 할 참 권리를 회복시키려 함이셨다. 가장 중요한 권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알고 자유할 권리이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명하셨다(마28:18-20).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 주민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박해하고 있고, 매년 전 세계의 종교 박해 지수 1-2위 국가로써 발표되고 있다. 북한의 유일사상은 주체사상이며 그 외에 그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도 허용되지 않는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기독교 사상을 접촉하거나 신앙을 소유한 흔적이 있다는 혐의가 발견되면 하룻밤 사이에 다른 죄수들이나 이웃이 모를 정도로 비밀리에 격리되어 처형된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의 실태는 국제법적으로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량학살에 속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다. 탈북자들의 목숨을 건 탈북과 이어진 증언이 아니면 영원히 그 상황을 몰랐을 것이다. 오늘도 북한은 모든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고 모든 지역과 구역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성분제에 의한 차별을 가하고 있으며 연좌제에 의해 공개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등 공포에 의한 통제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완전통제 사회에서 탈출한 탈북자들이 아니었다면 북한인권의 실태는 가려지거나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됐을 것이다.

인권은 국경이 없는 보편적인 가치이다. 탈북민들의 북한인권 증언은 국내보다 국제사회에서 더

2023년 10월 강제북송된 탈북민 중 10여 명이 신의주와 온성의 보위부 집결소에서 약 3개월간 탈북 경위와 중국에서의 행적 등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받은 뒤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⁴

이는 중국에서 기독교 단체와 접촉하거나, 한국이나 미국 등 제3국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북한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한국행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다. 특히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한다. 이렇게 단 한 번이라도 기독교를 접한 경험이 있으면 북한에서는 최고 수위 처벌에 해당되는 정치범수용소행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향후 과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북한이 종교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김정은 정권도 선대(先代)와 마찬가지로 종교를 체제의 위협 요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종교 문제가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코로나 시대 이후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 것처럼 종교 문제 탄압의 정도도 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북한의 전략을 잘 인지하는 게 중요해 보인다. 또한 종교 관련 처벌이나 탄압에 대해서도 북한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도 있다. 증언자로 나서겠다는 내부 주민들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다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마음

을 헤아리면서 이들에게도 자유를 찾아주는 전략을 구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독자 분들도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자기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러시아에 병력을 투입한 북한 당국에 국제사회가 충격을 받은 것처럼 북한 주민들의 반응도 그에 못지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단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전전긍긍이다. 북한 부모들은 자식을 군에 보내면 전화를 일절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려 10년 동안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자식이 파병됐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때문에 ‘점’을 보러 다니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당국의 조치 때문에 당국이 극도로 싫어하는 미신 행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종교 문제도 이렇게 탄압하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북한 당국이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다. ☹️

4 장슬기 기자, 데일리엔케이, “[강제북송 그 후] 기독교 접한 사실 확인되면 관리소행”, 2024년 4월 22일

심각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인권 문제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적 잣대의 기준 적용에 의해 다뤄져 왔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의 참상을 직시하고 북한 주민의 박해와 탄압을 좌시하거나 묵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권고

우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2월에 유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권이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 아래에서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저지르고 있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 사태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COI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사상 처음 출범한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이다. 2013년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제22차 회의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가 1년 동안 전 세계의 탈북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북한인권 상황은 식량권 침해, 관리소



등 구금문제, 고문, 자의적 구금, 차별,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납치와 실종 문제 등이다. COI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방대한 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조사를 벌인 결과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관할권이 있는 국가나 국제 사법기관에 의해 형사적 수사와 소추가 개시돼야 할 근거가 존재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유엔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ICC회부 절차가 막혀있고 북한이 아직까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실행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법과 인류의 양심에 반하는 반인도범죄를 동조하는 자세를 바꿔 그 책임을 다하도록 기도할 제목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의 책임을 지닌 북한의 지도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 관할권을 가진 국제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보호 의무를 해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는 보편적 관할권과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그리고 국제 규범에 의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보호책임이란 용어는 2005년 유엔 총회보고서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보고서의 제목이다. 이는 한 국가의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해당 국가에 있지만, 만약 그 국가가 고의로 의무를 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자국민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공동체(community of states)가 이들을 보호할 책임을 갖는다는 것이 핵심 사항이다.

R2P는 국가의 절대적 주권은 자국민을 보호해

야 한다는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라는 한 국가가 북한 국민의 인권보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가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에 우선권을 두어 외부의 개입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2P 보고서는 집단학살(Genocide), 인종청소, 전쟁범죄, 침략, 반인도범죄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일차적 책임은 개별국가에 있으나 개별국가가 주민 보호에 실패하고 해결 수단이 없거나 방치될 경우 국제공동체인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집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R2P를 행할 수 있는 상황을 위 네 가지 국제형사범죄로 한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동의에 따라야 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마지막 호소로서만 군사적인 개입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R2P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개입의 남용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행동 원칙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전체동의가 있어야 실현 가능하다는 부담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기제에 의한 북한인권 책임자 기소는 유엔총회의 결의에 의한 ‘특별 재판소(ad hoc tribunal)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까지 북한인권의 심각한 상황을 모르는 유엔회원국과 국제사회에 더욱 북한인권의 실상을 전하고 국제공동체의 인식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시민사회(NGO)가 인권 침해에 대한 진실 확보의 과정을 통해, 북한인권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들이 겪은 인권 침해의 진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고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COI는 권고하고 있다. 진실확보의 과정은 반드시 효과적인 배상과 구제책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므로 북한인권의 책임자를 국제사회가 책

임을 묻고 기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과 함께 북한인권 피해자들의 치료와 배상 그리고 진실확보를 통한 명예회복을 추진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동시에 북한 인권의 가해자인 북한 정권의 책임 문제를 국제 논의의 최우선 과제로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

2024년 12월 유엔총회에서 20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처럼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통한 북한인권 대응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인권개선의 통로를 넓혀 갈 필요가 있다. 북한이 유엔의 제도 중에서 참여하고 있는 제도를 통해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해 나갈수 있는데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활용할 수 있다.

UPR은 국제인권 메카니즘의 하나로 인권이사회에서 2006년도에 신설된 제도로써 유엔 193개 회원국들로부터 순번적으로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 제도이다. 2008년도 최초 시행돼 4년 6개월마다 순차적으로 유엔회원국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권고안을 수검한다. UPR은 모든 국가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기반으로 하는 중요한 혁신적 제도로써 유엔 인권이사회의 독특한 프로세스이다. 이는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인권 개선에 대한 도전 과제를 위해 취할 조치를 자발적으로 선언할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국제기구 중에서 UPR만큼 최고의 인권 관행을 공유하는 제도가 없으며, 국제인권 기



〈2024년 11월 6일 유엔인권정책센터, 북한정의연대, 북한인권증진센터 등 북한인권단체들이 연대하여 제네바 유엔사무소에서 열리는 제4차 북한 보편적정례인권 검토(UPR)일정에 참석하여 각국 유엔대표부를 대상으로 북한인권 권고사항을 제안보고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필자 제공)〉

구 안에서 UPR과 같은 종류의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UPR은 각국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촉진하고 지원 및 확대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모든 국가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UPR은 해당 국가의 인권 기록을 평가하고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모든 곳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제4차 북한 국가별 정례인권 검토(UPR)회의 참가

북한은 UPR이 실시된 이래로 2024년 12월 현재까지 총 4차례(2009, 2014, 2019, 2024년도) 참여했다. 북한정의연대를 비롯한 국내외 10여개 국제 북한인권단체는 2024년 11월 개최된

북한 제4주기 UPR에 참여하여 각 유엔 회원국들에게 북한인권 보고서와 연대 및 개별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대한민국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관련 이해 관계자들은 유엔헌장 제71조 '시민사회(NGO)의 참여 보장'에 따라 북한의 제4차 UPR에 관여하고 참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으로 준비해 왔다.


금번 북한인권 단체들의 UPR 보고서에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북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에 필요한 이상의 제약을 받았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 제정으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내용을 담아 폐지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담았다. 또한 북한의 사형제도 남용, 이동의 자유 제한과 종교인 박해문제, 탈북자 강제복송 후 고문과 강제실종, 관리소(정치범수용소) 구금문제, 국군포

로·납북자·억류자 문제와 재일복송 피해자 등 사회적 배경에 따른 차별 등을 지적하고 권고사항을 제출했다. 10만 명의 6·25 전시납북 피해자 중 우리나라에서 공식 확인된 4,777명의 생사를 확인하고 즉시 가족들에게 돌려보내거나 유해라도 송환해야 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특히 북한에 10년 이상 억류 중인 한국인 선교사들과 납북자, 중국의 강제복송에 의한 탈북민 처벌과 그에 따른 강제 실종을 중단하고, 북한 주민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실종자와 납치자를 즉각 석방할 것을 권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북한은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보고(UPR) 외에도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및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기반하여 나름대로 북한인권 증진 노력에 협조하는 듯한 태도를 일부 보여왔다. 제4차 UPR에서도 북한대표부는 대부분의 자유권 침해 권고사항은 거부하고 북한의 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식량·영양권, 건강권 및 교육권 보장 등에 관한 국제사회의 권고에 대한 답변은 매우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강변했다.

1~3차에 이어 금번 제4차에 이르기까지 북한 정부가 UPR 제도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검토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다. 5년 뒤에 갖게 되는 5차 UPR을 염두에 두고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UPR을 통해 국제인권의 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접착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그리고 이는 북한인권 분야와 북한 선교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활용 가치가 있다.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 있어서 확장

성을 기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북한의 자유권 개선만이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향하는 북한의 사회권 개선과 인도적 기반 접근 관련 권고를 함께 마련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 개선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교 관점에서 인류 보편적 인권이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에 실현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여파와 동북아의 냉각기 상황과 맞물려 더욱 통제된 북한의 문을 두드리고 오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이면서 지속적인 인권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즉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여 북한의 자유권과 사회권 개선 노력을 모두 포함하여 실천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의 권고와 프로세스에 따라 한국교회의 통일선교 정책도 변화를 모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가 북한·통일선교에 있어서 북한인권 영역의 스펙트럼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의 권고와 규범에 따라 대북선교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간다면 보다 더 효과적인 전략이 개발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속히 열리고 인권이 개선되어 포로되어 갇힌 자들이 해방되고, 눈먼 자들이 보며,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기를 기도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북한인권 이해하기

하 광 민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 교수)

I. 들어가며

북한의 인권문제는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이 탈주민들이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본격적으로 그 심각성이 제기되었다. 이들의 증언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레짐을 구축하면서 책임규명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인권 문제는 사회-정치적인 문제인 동시에 종교의 자유 등 기독교가 안고 있는 자유의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는 사안이다. 이 연구는 북한인권문제를 국내외적으로 다루어왔던 사건들을 정리하고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북한인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관한 관점에 대한 글이다.

II. 북한 인권에 대한 국내외적 조사 및 대처

1. UN의 북한인권 메커니즘

UN은 1948년에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을 선언하였다. 인권선언 제1조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며 인권의 천부적 보편성을 강조하였다.¹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강조로 인해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인권메커니즘을 작동하여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증진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 개념은 3단계로 발전해 왔다.² 제1세대의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인 자유권으로 분류된다. 제2세대 인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인 사회권이다. 사회주의국가들은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다. 제3세대 인권은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이 출현하면서 인도주의적 원조, 자결권, 발전권, 평화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대두된 인권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함

1 세계인권선언 전문, <https://www.ohchr.org/en/human-rights/universal-declaration/translations/korean-hankuko> (2023년 7월 5일 접속)

2 김엘렌, “북한 인권담론에 관한 이해와 우리의 현실적인 제반과제” 아시아연구 24(2021): 195.

하며 2차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를 지나면서 개인, 국가, 국제사회 등의 다양한 층위에서 형성된 문제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층위에서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종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UN도 이러한 다양한 층위에서 북한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UN은 북한인권문제를 인권 메커니즘을 구성하여 다루고 있는데 UN의 북한인권 메커니즘은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2008년부터 도입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인 권검토(Universal Periodical Review, UPR)를 통한 북한인권점검이다. 이는 UN 전체 회원국들이 4년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제도로서 북한도 UPR에 참여하고 있다. 둘째는 UN인권이사회가 창설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활동이다. 2013년 UN 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서 “특별보좌관과 인권이사회 의장이 임명하는 두 명과 특별보고관으로 구성되는 세 명의 조사위원회를 창설하여 1년간 활동하게 할 것”을 결정하였다.³ 셋째는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를 통한 공동결의 및 보고서 채택을 통한 북한인권 점검이다. UN인권위원회(2006년부터는 ‘UN인권이사회’로 개편)는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2005년 이후에는 유엔총회 차원으로 격상되어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20년 연속 채택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22년에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며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규탄에 동참하였다. UN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사실을 확인하고, 인도에 반한 죄

3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A/HRC/22/L.19)

가 성립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북한 인권실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보호책임 원칙 적용, 과도기 정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⁴

2. 한국 내 북한인권을 바라보는 두 시각

북한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관점이면서도 동시에 특수한 상황이라는 두 가지 양면이 존재하는데,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가 대립한다고 보고 있다. 문화상대주의는 인간의 가치는 상이한 문화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이므로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듯이 인권의 다원주의를 주장한다.⁵ 또한 북한 인권 문제에서는 인권의 보편성과 아시아적 가치가 충돌한다. 아시아적 가치란 중국이 주장하는데, 중국의 고유한 전통을 내세워서 공동체와 질서를 중시하는 아시아의 건강한 사회에서 나오는 인권을 주장한다. 아시아적 가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아말로 가장 중요한 인권이며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이다’라고 본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우리식 인권”이라는 개념을 내세워 정부의 인권탄압을 무마하고 있다.

III.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권

기독교에서는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 보고 있다. 인간이 가지는 인권의 천부성

4 조정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분석 및 평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07(2014): 5-11.

5 김수암, “인권논의의 세계적 흐름과 북한인권” 『북한인권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제2장, (한울: 서울, 2010), 74.

은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가리킨다(창 1:26).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했지만, 칼빈은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며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은 자연적인 천품이며, 따라서 이것은 완전히 말소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⁶ 이는 인간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구별되는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임을 전제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억압과 가해적 구조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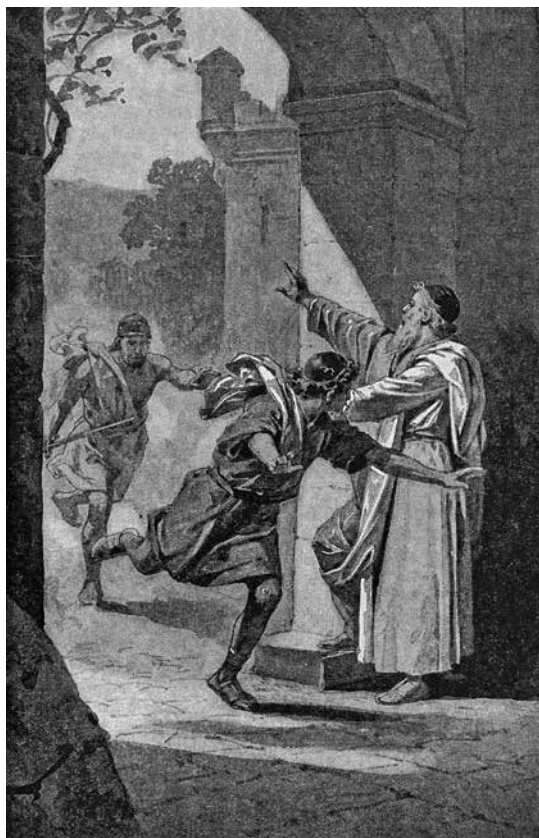
1. 구약성경에 나타난 인권존중

1)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the image of God)으로 창조되었으며 인간의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사상이다.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피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며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값을 가인에게 물으셨다(창 4장). 또한 창세기 9:6 절은 인간의 생명의 고귀함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6). 여기에서 인간생명존중의 보편성이 나오게 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 다른 여타 동물과는 구별되는 존재가 된다.

2) 율법에 나타난 인간존중 사상

율법에 나타난 인간존중 사상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십계명에 나타난 인간 존중사상이다. 4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인권선언에서는 신앙권(제18조)과 휴식여가권(제24조)으로, 5계명의 부모공경은 인권선언에서는 노후보장권(제25조)으로, 6계명의 살인금지를 인권선언에서는 생명권(제3조)으로, 7계명의 간음금지를 인권선언에서는 자유로운 결혼권(제16조)과 가정보호권으로, 8계명의 도둑질금지는 인권선언에서 노예금지(제4조)와 소유권(제17조)으로, 9계명의 위증금지는 법의 보호권(제8조)과 공정한 재판권(제10조)으로, 10계명의 이웃에 대한 탐심



〈도피성(민 35:6)은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성읍으로 레위인에게 주어진 48개 성읍 가운데 6개가 지정되었다.〉

금지는 차별금지(제2조), 사생활 보호권(제12조) 등으로 등치시킬 수 있다.⁷

둘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이다. 출 21장은 노예들을 보호하는 법적조치가 기록되어 있다. 경제적 이유로 팔려온 히브리 노예는 7년마다 자유를 줄 것과 주인과 노예의 관계와 관련하여 주종관계보다는 가정 존중의 구조를 기록하고 있다. 셋째는 도피성 제도이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내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만든 제도이며, 안전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일 그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면 도피성에 있을지라도 그를 끌어내어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출 21:12-14).

3) 선지서에 나타난 인권

이스라엘 왕정시대에 가난하거나 힘이 없는 자들을 지키는 자들은 선지자들이었다. 그들은 고위 권력자나 귀족세력들,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사회정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었던 자들이다. 다윗왕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갖기 위해 부하를 몰래 암살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목숨걸고 왕에게 대항하였다(삼하 12:9-12). 아모스 선지자 역시 당시 귀족들과 부자들이 궁핍한 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박탈하는 시도에 제동을 걸고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외쳤다(암 5:24).

이처럼 선지자들은 당시 가난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내에 율법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이미 율법에

가난한 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돌봄을 기록해놓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 법에 근거해 지배층들의 부당하고 과도한 권리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있었다. 따라서 한 사회의 인권법적 제도와 체계는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선지자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다.

2. 신약에 나타난 인권존중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명권이 매우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 사람의 생명이 천하의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분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라는 말씀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일이 더 큰 계명이라”(막 12:31)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예수는 이 땅에 계실 때에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시고(눅 18:1-8),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고(요 8장) 그들이 다시 사회 속으로 복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사회 속에서 한 인격으로 회복하고 인권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행동들이었다.

바울 역시 인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기억하고 인간의 존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임을 밝힌다(고후 4:4; 골 1:15). 그리하여 회복된 인간은 그들의 상이한 배경(성, 인종, 나이, 지역 등)을 초월하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고백한다(갈 3:26-28).

6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상』 김종흠·신복윤·이종성·한철하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1), 399.

7 김형민, “기독교 신앙에서 본 인권의 의미”에 대한 논평, 『기독교와 통일』(2007): 98.

IV. 기독교가 바라보는 새로운 인권 사상 - 관계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통적인 기독교의 인권사상을 살펴 보았다. 최근에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존의 두 가지 인권관의 간극을 메우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인권에 있어서 자유권과 사회권(경제권)의 갈등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갖는 인권이 형성되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인권을 해석하는 시도이다. 이를 “관계권”(relational rights)라고 한다.

1. 관계권의 정의와 출현 배경

관계권이란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이 위치한 삶의 정황 속에서 “인간 상호간에 서로 의존적인 존재이며 인간의 권리는 이러한 상황속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⁸ 관계권은 영국 기독교 학자들 중심으로 대두되는 개념인데, 기존의 서구 중심의 개인주의적 인권사상을 반성하며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에서 출발했다. 이들은 인간 존재가 개인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관계와 서로간의 상호의존성과 그에 따른 책임을 가지는 존재로 본다. 기존 서구 중심의 인간관은 인간의 삶의 정황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상이 깔려있다. 이는 루소(Jean-Jacques Rousseau)로부터 시작하였는데 루소가 주장하는 ‘자연의 상태’가 인간존재를 남들과 구별되며 자기 존재만으로서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존재가 됨을 밝히기 때문이다.⁹

이러한 개인주의적 인간관은 결국 ‘자아 심리학’을 발전시켰고, 이는 서구사회에서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게 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또한 개인적 인간관은 개개인들이 ‘표출하는 개인주의’를 낳게 되었는데 이는 타인과 상관없이 개인의 자유를 표출하는 권리를 의미한다.¹⁰ 또한 개인주의적 인간관은 인간이 ‘개인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¹¹ 개인이 사회에서 어떤 소유권을 가짐으로써 인간은 서로 서로에게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결과로 오늘날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다.¹²

서구의 개인주의적 인권은 결국 개인과 국가에게로 책임이 귀결되는 현상을 낳게 되며 이러한 인권은 가족이나 공동체와 그 안에서 연결된 수많은 관계들을 무시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관계권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서구의 개인주의적 인권을 보호하다 보면 관계적으로는 책임질 수 없는 행동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압박을 받는 어떤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였지만 정작 그 피해자는 공동체 안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경우(여성, 노인 등)가 많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는 인권은 보호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는 더 좋지 않은 상태에 놓일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서구적 개인주의적 인권을 강조하여 그것을 법적 테두리에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에는 실패한다는 것이 약점이

다. 법적 판결을 받으면 한 쪽은 승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패자가 되어 승자독식의 원리가 작용하게 된다. 그로 인해 패자를 비롯한 다양한 구성원들을 품어내는 총체적인 회복에서 실패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계권을 주장하는 자들은 인간의 관계에 집중하며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인간의 권리(인권)를 세워가는데 집중한다. 건강한 관계는 다음의 5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① 상호적 의무와 책임
- ② 충성과 신실함
- ③ 긍휼, 자비, 친절함
- ④ 공정, 정의, 진실
- ⑤ 상호 관용과 존경¹³

이상과 같은 가치들에 근거한 관계들은 나라, 문화, 종교를 넘어서 건강하며, 이러한 관계들은 착취나 탄압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관계자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을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관계권론자들은 인간의 권리를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인간존재의 상호의존성과 그에 따른 책임의 관점’에서 보려고 한다. 그래서 인권을 ‘승리’의 관점이 아닌 모든 당사자들의 다양한 상황과 관계 가운데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한다.¹⁴ 그 결과는 상호 이해 및 관계 회복으로 나타나도록 한다. 또한 관계권은 한 사회에서 억압에 대한 변혁적인(transformational)을 해결책을 모색한다. 왜냐하면 관계권에서 ‘관계’란



추상적이고 모호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에 의한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세워가는 비전이기에 때문에,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관습들은 관계권과는 양립할 수 없다.¹⁵ 이런 점에서 관계권론자들은 중국이나 기타 권위주의적 국가들이 내세우는 ‘아시아적 가치’ 또는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식 인권’과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UN인권선언에는 자유권과 사회권, 그리고 제3세계가 요구해서 삽입한 발전권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인간 존재를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하여 관계권을 인권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일이다. 이에 관계권론자들은 향후 UN총회에 인권에 대한 정의 부분에 관계권을 추가 삽입하는 청원절차 뿐만 아니라 각국별로 관계권 입법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 기독교에서 보는 관계권

관계권론자들은 관계권의 출발이 기독교 세계관에서 출발한다고 밝히고 있다.¹⁶ 이는 개신교뿐만 아니라 로마카톨릭, 동방정교회 모두가 수용하는 세계관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창조된 피조물이므로 인간은 고유하고 평등한 가치

8 Michael Schluter 외 3명, *Relational Rights: A World-inclusive and relationships-affirming understanding of the rights of every human person* (Relational Research, 2021), 8.

9 위의 책, 15.

10 Robert Bellah et al., *Habits of the Hear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334.

11 C.B. Macpherson,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3.

12 Michael Schluter 외 3명, 19.

13 Michael Schluter 외 3명, 38.

14 Michael Schluter 외 3명, 54.

15 Michael Schluter 외 3명, 57.

16 Michael Schluter 외 3명, 64.

황폐한 그 땅의 소망, 그루터기(4)

김 열 매 성도

를 지닌 존재로 본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을 개인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인간을 관계적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뜻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삼위-성부, 성자, 성령-는 서로 간에 연합되어 있으며 상호간에 깊은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역시 이러한 연합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인간은 복합적이고 상호 의존 관계에서 존재한다. 인간은 결코 고립되어 살아가 수 없다. 그 누구도 그 자신으로서 ‘충족한 개체가 아니며 나 스스로 나의 운명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다.’¹⁷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중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그는 “네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 22:37-39)고

하셨다. 이는 인간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나타난다.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성육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엡 2장).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고 이는 관계 중심의 공

동체이다. 교회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으로 모든 어그러진 관계들을 바르게 잡아간다(엡 2장).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들 역시도 인간과 사회 속에서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덕목들이다(갈 5장). 이처럼 기독교는 인간을 관계 가운데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태도(빌 2:4)’를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관계권은 기독교적 시각에 부합하다고 보겠다. 다만 그것이 인권부분에 어떻게 접목되어 적용될지는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이다. 향후 관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길 희망한다.

V. 나가며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에 대한 보편적, 특수적 관점들을 살펴보고, 기독교적 관점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관계권’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필자는 관계권만이 기독교의 유일한 인권 개념이라고 말하고 싶

지 않다. 그러나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그리고 그 인권향상이 실제적으로 집행되기 위해 교회는 북한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작은 노력의 일환이다. 2025년도에도 여전히 숨죽이며 말하지 못하는 자들의 소리(Voice of the Voiceless)를 교회가 대신 외치는 것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작은 시작이라고 본다. ☹



17 아더 홉스, 이승구 역, 『기독교 세계관』(서울: 솔로몬, 1990), 165.

‘열매야, 너네 아버지 아까 집에 들어가는 걸 봤어. 빨리 집에 가봐!’

농장 일을 하다 말고 들려오는 소리에 달음질하여 집으로 뛰어갔지만 문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고 홀로 누워 계시던 할머니만 계시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잡혀 가시고 나서 우리 형제들은 동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낮에 문을 열고 집을 나르면 사람들이 서로 수군대면서 비웃었고, 저희들을 앞에 놓고 “저 애들은 이제 실려 가면 생체실험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겁을 주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 집에 마음대로 들어와 창고를 돌면서 집에 식량이 얼마 있는지를 측정하고는 나라에 충성심을 보이려면서 집에 남겨진 식량들을 모두 실어내 나라에 바치게 하였습니다. 밤이 되면 집을 지키는 청년들이 마당에서 키우던 토끼며 농사일에 쓰는 농기구들을 들고 갔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도 내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들이었고 반동 놈의 자녀들일 뿐이었습니다. 친척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해

야 했고 철저히 단절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할머니까지 돌아가시게 되니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전보로 할머니의 소식을 전해들은 둘째고모가 고무부와 함께 찾아오셨습니다. 고모네 가족은 함경남도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있던 온성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소식은 전혀 모르고 계셨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전보를 받고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둘째고모네 가정도 믿음의 가정으로 이 고모부가 바로 예전 우리와 함께 2년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중국할머니(2화 참조)의 아들이었습니다. 고모께서는 할머니의 비보를 전해 듣고 웬지 이상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어 집을 떠나기 전에 집에서 보시던 성경에서 사복음서만 뜯어 몸에 숨기시고는 나머지 성경은 다 소각하고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고모네 부부와 함께 할머니 산소에 갔다 와서 우리는 마지막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새하얀 쌀밥을 지어 상에 올리셨습니다.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고도 다 같이 둘러앉은 우리 가족은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모두 숨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자 어머니께서 고모께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고모도 이제 다시 집으로 내려가면 무사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자 고모는 바로 “형님, 내 걱정은 말아요. 내 대답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이 더 건강하셔야 해요. 이제 어디로 실려 가게 될지 모르는데

저 아이들을 데리고 살려면 건강 하셔야 해요. 우리 다음에 좋은 곳에서 만나요.”라고 작별인사를 하셨습니다. 고모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밤을 함께 보내고 고모는 다시 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것이 고모와 고모부와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온성에서 집으로 돌아가시자마자 고모는 바로 국가보위부에 붙잡혀 들어가셨고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고모는 엄청난 고문 속에서도 ‘죽어도 믿겠다’는 말만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고모를 보며 보위부 사람들은 ‘그렇게 지독한 년은 처음 봤다’라며 혀를 찼다고 합니다. 고모는 모진 고문 끝에 더 좋은 천국으로 가셨고 고모의 가족들은 관리구역으로 실려가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고모의 소식이 떠돌다 2-3개월쯤 지났을 때 아버지께 대한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계셨던 감옥 주변에는 수도 없는 고문으로 인해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고 그 냄새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곳을 지키고 있는 간수들조차 그 주변에 가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6개월 정도를 감옥 생활 하시던 아버지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यो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32-33)

고난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고모가 떠나시고 난 후,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던 어머니도 온 몸이 통통 부어오르면서 쓰러지셨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소식을 들은 외삼촌들은 어머니를 입원 시켰습니다. 결국 집에는 저희 4형제만 남겨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는 동생들과 함께 아침을 지어먹고, 오빠와 나는 농장으로, 동생들은 학교로 뿔뿔이 흩어졌고 저녁이 되면 다시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큰 집에 아이들만 남겨진 채 보냈던 두 달은 쓸쓸하기 그지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아버지와 할머니가 너무나 보고 싶어 눈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두 달 뒤, 어느 정도 건

강이 회복되신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어머니가 돌아오시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번에는 제가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져서 저는 완전히 정신을 잃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집을 보고 ‘저 집에는 화가 쌓으로 들어간다’며 비난을 퍼 부었습니다.

동네에는 제가 3일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막내삼촌이 조용히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귀가 열려 있었는지라 일어나 삼촌을 맞이하는 못했어도 그때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와 동생들은 저를 둘러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삼촌께서 신발 벗는 마당에 서서 “형수, 열매 저렇게 죽이시겠어요?”라며 어머니의 마음을 찢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삼촌은 그러고는 한참을 그곳에 서 계시다가 한숨을 쉬시고는 나가셨습니다. 삼촌이 나가시자 어머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내가 내 새끼를 죽이고 싶겠는가. 저들도 무서워서 이 집에 발길질을 못하면서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는가”라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렇게 제 옆에서 흐느끼시는 어머니께 저는 어떤 위로의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우시고는 동생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두부콩을 팔아 제 약을 사자고 말입니다. “우리, 너희 언니부터 살펴보자. 내일 저 콩을 팔아서 언니 약부터 사자.”라고 하시고는 정말 다음 날 집에 남겨져 있던 곡식을 다 팔아 주사약을 사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시간마다 제 엉덩이에 주사를 놔주셨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정신이 들고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

다. 언젠가부터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고 또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힘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바랄 수 없게 만드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도록 훈련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고, 홀로 설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울어도 하나님만 찾으며 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꽤 오랜 시간 추방되지 않고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실려 갈 준비를 하며 언제 어떻게 잡아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 지내야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우리의 추방이 늦어진 연유에 대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가족이 드러나게 된 사건의 전말은 라진선봉 로기야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로기야 할아버지는 우리 할머니의 조카로 믿음의 사람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시던 동네에 청년들을 전도해서 몰래몰래 예배를 드려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국가보위부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함께 예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붙잡히게 된 것입니다. 심한 고문을 이기지 못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지만 로기야 할아버지와 그 가족, 그리고 한 명의 청년이 죽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여 그들 모두 관리소로 실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풀려난 청년들을 통해 온성의 식구들과 함경남도에도 고모네까지 다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높은 직위에 계시던 친척들의 도움으로 관리구역을 면할 수 있었고 시간이 꽤 지난 후에야 살던 지역에서 추방되어 산골로 추방이 되었습

니다. 물론 외진 곳이고 그곳에서도 도청과 감시는 있었지만 다행히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잡혀 나가시던 그날, 할머니는 아버지 가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보위부 사람들이 아버지를 양 옆에서 팔짱끼고 끌고 나가는 뒷모습이 마지막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보위부 사람들이 아버지의 작업실을 샅샅이 뒤졌지만 성경책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성경책을 천 주머니에 담아 저희들이 옷을 걸어두는 옷걸이의 옷들 속에 걸어두셨기 때문에 성경책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아버지가 붙들려 나가시고 난 후, 옷걸이에 걸려있던 성경책을 가슴에 품으시고 뒷문을 통해 작은 아버지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경책을 다 태우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할머니께 우리가 보던 찬송가책이 어디 있는지 여쭙어보았지만 할머니는 ‘다 태웠으니 이제는 찾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 국가보위부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집을 수색했지만 성

경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성경책과 찬송가가 다 불태워진 줄로만 알고 있던 어느 날, 우리가 아직 실려가기 전이었습니다. 막내 삼촌이 저희 집으로 와서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작업실로 저를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삼촌은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열매야,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구나. 벽에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도 같이 있지 않는지도 의심스럽다. 너에게 줄 것이 있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것이다.” 그리고는 가슴에 품고 계시던 것을 살며시 꺼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메모하면서 불렀던 찬송가책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성경책은 다 태우시고 오직 저희가 배웠던 찬송가만 남겨두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전해주시며 나중에 상황이 조금 조용해지면 열매에게 전해주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찬송가를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할머니가 다 태워버리셔서 다시는 볼 수 없을 줄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책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농장 일을 할 때는 가슴에 숨길 수 없었기 때문에 마당에 있던 돼지 굴덤불에 몰래 숨겨두곤 했습니다. 어머니에게도 동생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저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들에게도 보여주자고 마음을 먹고 학교에서 돌아온 동생들

을 데리고 찬송가가 숨겨져 있는 돼지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감시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돼지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숨겨 두었던 책을 꺼내 동생들에게 보여주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동생들도 너무나 감격해 했습니다. 우리들은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모여서는 찬송가를 보면서 작은 소리로 불러보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야, 거기서 너희들 뭐하니?”라는 소리가 들려 우리는 모두 화들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 밖을 보니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농장 일을 마치고 들어오시던 길에 우리를 보신 것이었습니다. 다급하게 책을 숨기려고 했지만 어머니가 이미 보시고 책을 채가셨습니다. 찬송가인 것을 알아보신 어머니는 급히 그 책을 숨기시면서 “너희들 어찌자고 그러니. 죽음이 앞에 있는 마당에...” 라고 우리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을 되새기면서 속으로 부르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이렇게 눈앞에 증거를 남기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라시며 언제 실려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죽음이라고 하시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어머니는 하나뿐인 남겨지지 않았던 찬송가책을 부엌에 앉아 태우셨습니다. 그것을 태우시던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잔뜩 고여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995년 여름을 살던 동네에서 보내고, 96년 겨울을 맞으면서 우리는 결국 추방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집을 나서면서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과 함께 시작된 우리 가족의 비극은 언제 끝이 보일지 알지 못하는 긴 터널과 같았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는 생각해볼 여유

도 틈도 없이 하루하루를 긴장과 공포 속에 지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었고 순간마다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이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13)

(계속)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탈북민 트라우마 이해
저 자: 감 희
출판사: 나눔사
발행일: 2024년 09월 21일
가 격: 15,000원

『탈북민 트라우마 이해』는 탈북민이 북한과 남한에서 생활하며 경험하는 다양한 트라우마에 대해 정리한 책이다. 저자가 정의하는 북한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로 ‘빅브라더’가 눈을 부릅뜨고 구석구석까지 낱낱이 감시, 통제하는 사회이다. 그곳에서 삼부자의 규범이나 질서를 어기거나 체제의 이념에 배치되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용서가 불가능한 일이며 당사자를 죽음으로 이끄는 행위이다. 이러한 강압적 상황에서 북한의 주민들은 미리 상벌을 예상하여 행동 하나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수동성에 빠지거나, 순응하는 척 하며 살아가는 이중적 삶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이러한 전체주의 사회를 폭력성이 내재된 사회로 정의한다.(52쪽)

2장 ‘북한폭력생태체계도’에서 저자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이론을 차용하여 북한사회의 폭력성에 대한 구조화를 시도하여 이를 ‘북한폭력생태체계도’로 표현한다. 북한폭력생태체계도에 의하면 거시체계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세습체계, 외체계는 감시통제처벌체제의 구조화, 중간체계는 일상생활 속 폭력 만성화, 미

시체계는 개인체계(개인 내면의 불안감과 트라우마)이다. 저자는 이를 통해 사회의 각 단위별로 지닌 폭력성을 공개한다.

거시체계는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의 예화 -침대보다 키가 큰 사람은 다리를 자르고 침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몸을 억지로 늘려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나그네의 비유- 로 설명된다. 예화 속에서 프로크루스테스의 기준에 정확히 맞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든 나그네가 죽게 되듯, 북한 주민들도 북한의 사상과 일치하는 신념체계를 가진 극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개인의 주체적 사고와 판단이 말살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거시체계·외체계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제약한다면, 미시·중간체계의 희생자는 주로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들이다. 북한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들이 놓인 극단적 결핍과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들이 건강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신체적, 정서적 체벌은 아이를 ‘혁명의 기둥’으로 만든다는 명분하에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아동 학대이다. 북한 여성에게 있어 결혼생활은 또 다른 폭력의 장이다. 여성은 남편의 지배욕을 사랑의 기호로 해석하며,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자신의 불충으로 여기고 자책하며 오히려 본인이 수치심을 느낀다.

부부간 성관계에 있어서도 아내는 결정권에서 배제된다. 저자는 아내가 남편의 지배욕을 충족시키며 서서히 신체적·심리적·정신적으로 종속되어가는 과정을 묘사한다. 물론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활동의 중심에선 여성들의 가정 내 권위가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양성적·위계적 성역할의 무게를 짊어진 여성의 삶은 여전히 가혹하다.(103쪽) 이렇듯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와 여성에 대한 일상화된 폭력은 이들의 신체와 마음, 뇌에 새겨져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3장 탈북민의 남한살이는 남한에서 탈북민의 사회적 지위와 정신건강을 다룬다. 저자는 남한에서 탈북민의 사회적 지위를 이념화된 존재, 부유하는 존재, 경계인으로 규정한다. 이는 국내정착 탈북민의 상황에 대한 수많은 저작에서 다루어진 내용으로 대다수 독자가 이미 이해하고 있을 내용이다. 저자가 여기서 말하는 “이념화된 존재”를 우리는 어떠한 이념에 매몰되거나, 진영에 의해 이용당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는 더욱 넓은 의미에서 ‘이념화’문제를 다룬다. 저자가 말하는 이념화된 존재란 한국사회의 중요한 가치인 ‘통일’을 오롯이 홀로 짊어진 탈북민의 처지를 표현하는 말이다. “탈북민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로 호명되기보다는 ‘통일 역군’, ‘통일 마중물’, ‘치유자’등 도구적 존재로 호명된다.”(117쪽) 어려서부터 결핍 속에 자란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어려서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 자라온 남한사람들과 경

쟁하며 살아간다. 거기에 더하여 이들에게 부여된 이념적 부담감은 탈북민들이 소유한 상징자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벗어날 수 없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마음과 뇌, 몸에 깊은 흔적으로 남아 개인의 사고방식과 생각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한 개인의 가정생활과 학업, 회사생활, 대인관계, 사회적 참여 등을 제어하며 삶의 안녕감을 침해하게 된다. 저자는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개별사례들을 소개한다. 3장에서 저자가 열거한 사례들은 모두 탈북민 출신 기독교인들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저자는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주목한다. 이들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내면에 자리잡은 트라우마는 이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기도생활, 말씀생활 등 영적인 행위에도 영향을 미쳐 제자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자는 사회적 차원에서 치유환경의 조성, 기독교 영성의 차원에서 화해와 치유의 교회공동체, 예배의 회복, 찬양과 워십, 성경읽기와 묵상, 관상기도와 영적고전읽기를 들고 있다.

이 책의 앞부분의 북한체제를 설명하며 북한체를 관통하는 단어는 전체주의(totalitarianism)이다. 저자가 설명하는 탈북민에게 트라우마를 안기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저자는 대다수의 문제가 전체주의와 연결된 것으로 본다. 전체주의는 북한을 설명하는 유용한 개념으로 사회체제를 구분하는 학술적 개념이다. 그러나 이 책은 각각의 사안이 전체주의의 어떠한 측면을 반영하는지까지는 다루지 않는데, 지면의 한계 때문이겠지만 이 책을 이해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전체주의에 대한 이해를 고려할 때 관련 내용이 보강된다면 책이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 책이 탈북민의 트라우마를 다루다 보니 탈북민들의 북한생활과 남한생활의 어두운 측면이 많이 그려지는데, 그러다보니 의도치 않게 북한사회와 탈북민의 삶이 어두움으로 차있는 것처럼 읽힐 수도 있을 것 같다. 독자들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이 책을 접한다면 좋을 것 같다.

저자는 서문에서 국내정착 탈북민이 겪은 상황을 이해하는 노력은 탈북민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통일준비 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저자가 이 책을 통해 정리한 북한출신 주민이 겪는 인권침해, 폭력과 반평화 그리고 트라우마의 내용들은 탈북민의 트라우마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주며, 이러한 경험은 통일준비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큰 자산이 될 것이다. ☺

국정원 “우크라 파병 북한군 사상자 1100명 달해…장성급 사망”



〈러시아 크루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과 교전 중에 우크라이나군 드론에 포착된 북한군 추정 병사의 모습〉

국가정보원은 12월 19일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관련 "최소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부상자는 1000여 명에 가까이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시 예상되는 종전 협상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쿠르스크 지역은 러시아의 막바지 영토 탈환 공세로 최대 격전지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르스크에 배치된 1만1000여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 일부가 12월 들어 실제 전투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교전 이전에도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드론 공격 및 훈련 중 사고로 인해 장성급 고위급을 포함한 수 명의 북한군 사상자가 이미 발생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전사한 최고위 계급은 적어도 장성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은 교전에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다수 발생한 배경에는 개활지라는 낮은 전장 환경에서 북한군이 전선 돌격대 역할로 소모되고 있

다는 점, 드론 공격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등이 있다"며 "러시아군 내에서도 북한군이 드론에 대해 무지해 오히려 짐이 된다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현재 폭풍 군단 내에서 추가 병력 차출설이 돌고,金正은의 훈련 참관 준비 정황이 포착돼 북한군의 추가 파병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북한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 반대급부 제공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 파병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 규모를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대신 북한의 파병 징후들이 보이고 파병 여력을 충분히 가진 것으로(판단된다). 폭풍 군단은 10개 여단 4만2000명의 군사력을 가졌고, 현재 1만1000명이 파병됐다"고 답했다.

러시아군이 북한군의 신원확인을 막기 위해 소각처리를 한다는 보도에는 "사실 확인 중"이라며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군 참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조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는 종합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북한군 내에 동요는 없는지 묻는 질문에는 "북한 내부 주민과 군인 내에서 동요가 있던 것은 사실"이라며 "군인들의 경우 본인들이 추가 파병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참고: 뉴시스, 12월 19일) ☺

트럼프, 대북특사에 ‘대화 지지파’ 리처드 그리넬 임명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대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문제를 담당할 대통령 특사에 측근인 리처드 그리넬(58) 전 독일 대사를 임명한다고 12월 14일

발표했다. 그리넬은 ‘적성국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온 인사로, 그의 지명은 트럼프가 2기 행정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그리넬을 특별 임무(special missions) 담당 대통

령 특사로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는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the hottest) 일부 영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는 특히 “그리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8년 간 북한과 일했고, 여러 나라와의 발전에 기여했다”며 그리넬의 역할 가운데 북한 관련 업무가 적지 않을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그리넬은 ‘안보 무임승차’ 반대론자로 더 유명하다. 2020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당시)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주독 대사 재직 중에는 주독 미군 3분의 1의 철수 방침을 마련하는 데 관여하기도 했다. (참고: 중앙일보, 12월 15일)

연말연시 중국 거주 탈북민 통제 강화

연말연시를 맞아 중국 각지에서 해당 지역 거주 탈북자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어 탈북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다.

데일리NK는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 우하이(烏海)시 공안당국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역 내 탈북민과 관련해 강도 높은 단속 정책을 발표하였다고 전했다. 우선 이상 행동을 하는 탈북민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신고 대상은 불법 거주 탈북민과 의심스러운 동거 사례, 탈북민이 가담한 불법 행위 등이며,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성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고 한다. 또한 연말까지 등록된 탈북민 여성과 아동의 거주지 재등록 절차를 진행하며 거주지 정기 방문 조사는 물론 탈북민이 불법적으로 거주하거나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농촌 미혼 남성 세대에 대한 방문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 공안기관은 시 안의 탈북민이 북한 또는 한국과 연락하며 민감한 정보들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간첩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데일리NK는 또한 12월 1일부터 중국 지린(吉林)성 공안당국의 지시로 쓰핑(四平)시와 통화(通化)시에서 강화된 탈북민 감시 관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쓰핑시와 통화시 공안은 매 파출소들이 관할 지역 내 중국인 남성과 동거 중인 모든 조선(북한) 출신 여성의 사진을 매주 한 차례 이상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성(省) 공안에 보고하는 강화된 탈북민 관리·감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월에 1회 정도 사진을 요구했지만 1일부터는 중국인 남성과 사는 탈북민 여성들을 파출소나 촌장실로 부르거나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식으로 매주 1~2회 사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매체는 이러한 조치가 탈북민들의 거주지 이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탈북민들을 집중 관리·감시하고자 하는 중국 공안당국의 의도가 반영된 조치라고 분석하고,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조치가 음력설과 정월대보름 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참고: 데일리NK, 12월 10일, 13일)

EU의회,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위한 결의한 채택

유럽연합(EU) 의회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의회는 24년 11월 2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침략 전쟁 및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증대에 맞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의회의 확고한 지지 강화’라는 제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과 함께 북한 주민들을 향한 북한 정권의 인

권 침해 우려도 담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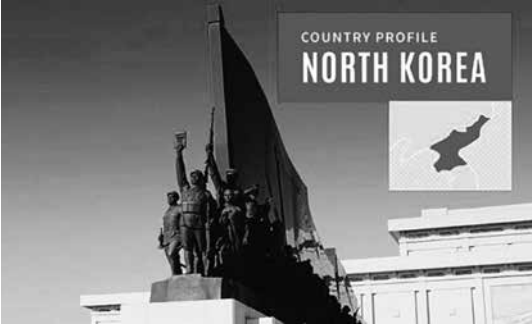
유럽의회는 특히 10년 이상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적의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북한이탈주민 김철옥씨의 사례를 포함해 “인권 상황과 강제 실종, 억류자, 송환된 난민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기구의 북한 내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선교사는 북한에 억류된 지 4000일이

넘었다. 김국기 선교사는 지난 10월 억류 10년을 맞았고 최춘길 선교사는 다음 달에 억류 10년이 된다. 세 선교사 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 3명도 2016년 북한에 억류됐다. 김철옥씨는 지난해 중국에서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식 다음 날 북·중 접경지역을 통해 탈북민 수백명과 함께 강제 북송된 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유럽의회는 “북한 정권이 억압적인 정책을 펼치고 주민들의 기본적 필요를 체계적으로 무시해 주민들이 광범위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에는 강제 송환 관행을 중단하고 북한 난민이 국제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고: 국민일보 11월 29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로마교황청 산하 재단 등 북한 종교박해 보고서 발표



〈교황청 산하 재단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가 최근 발간한 '박해받고 있느냐?' 보고서의 북한판 표지〉

지난해 강제 복송된 탈북민 중 기독교를 접했던 이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는 등 북한의 종교 탄압이 극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황청 산하 재단인 '고통받는 교회 돕기(ACN)'는 최근 '박해받고 있느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을 포함한 18개국에서 일어난 종교 탄압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중국에서 송환된 탈북민 가운데 기독교인과 교류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의 국가보위성은 중국 경찰이 제공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탈북민을 심문한다"며 "보고서에 종교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탈북민이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예외 없이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인정되는 유일한 종교는 김일성을 포함한 김씨 가문 일가뿐"이라며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국가 통치에 위협으로 간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기독교인이 박해받는 최악의 국가"라며 "기독교를 믿을 경우 관리 대상이 돼 가차 없는 폭력에 시달리게 된다"고 부연했다. 해당 보고서는 기독교를 접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본 주민을 9만 8000명 정도로 추정했다.

한편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10월 31일 '북한 강제 실종 범죄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 탄압과 관련된 사례들이 여럿 포함되었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양강도 운흥군에서 김일성 초상화를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매복해 있던 보위원들에게 잡혀 실종됐다. B씨는 양강도 보천군에서 성경을 다른 지역으로 전달하려다 체포됐는데, 열흘 후 그의 어머니도 체포됐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권력 절대화와 김씨 일가의 우상화 선전을 약화시킬 수 있는 종교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사람들을 제노사이드에 가깝게 절멸해 왔다"며 "1990년대 이후 국경을 넘나들며 기독교를 접하는 주민이 늘자 북한 당국은 탄압을 배가했다"고 설명했다. (참고: 국민일보, 11월 28일)

1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선교사 석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관련 연구와 보도들을 통해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선교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기독교 박해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가 확인한 최근 박해 사건들의 경우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뿐 아니라 갑작스럽게 행방이 묘연해진 가구들을 고려할 때 예상 피해 규모가 어림잡아 200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기독교를 체제의 위협으로 간주하고 극심한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 강제 복송된 탈북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는 23년 10월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23년부터 강제 복송된 이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신앙 유무 및 관련 접촉 여부를 심문하는 별도의 전담관을 운영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복송된 신자들과 강제복송 중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또한 이미 복송된 신자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 기도합니다.

3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 선교사님께서 억류되신지 4천일이 지났습니다. 이 외에도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이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갇혀있는 선교사님들이 신앙을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루 속히 자유함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인권 침해와 억압이 중단되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은 소위 3대 악법이라 불리는 각종 사상문화 통제 법령을 제정하고 주민들의 생활을 미디어 접촉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도 미디어 접촉과 공유를 죄목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 년에서 십 년 이상의 극심한 처벌을 선고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 및 각종 강제 노동과 고문 등 기존부터 제기되어 온 인권 문제들도 여전합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의 악습과 행태가 하루 속히 중단 및 개선되도록 기도합니다.

5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 1기 당시 북·미 정상회담 실무를 총괄했던 알렉스 뎡을 국가안보 부보좌관으로 임명하고 특임대사(special envoy)로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해 온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 대사를 임명하면서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북핵 폐기 대신 군축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화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는 결과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이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체제에서 벗어나는데 진전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6 안정적인 해외 북한 선교 환경 조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과 인접한 중국과 러시아는 선교의 교두보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 선교사 대량 추방 사태 등 국가간 관계 변화에 따라 선교 현장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아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선교사들과 현장 사역자들에게 안정적인 사역환경이 조성되도록, 그리고 더 많은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사역할 수 있는 문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러시아에 구금 중인 백 모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7 러우 전쟁의 조속한 종식과 희생되고 있는 북한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우 전쟁의 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북한이 1만여 명 이상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병하였습니다. 북한의 위태로운 행보가 동아시아를 넘어 국제 정세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백여 명 이상의 북한 측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오랜 전쟁으로 인해 고통 받는 지역 주민들에 더해 전쟁으로 인해 희생되는 북한의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하루 속히 종식되고 무고한 피 흘림이 중단되도록, 더 나아가 전쟁 종식을 통해 해당 지역과 한반도 모두 평화가 진전되도록 기도합니다.

8 북한 주민들의 민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북한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에 대한 대응을 명목으로 시장 대신 국가 주도의 배급 경제를 다시금 활성화하고자 애쓰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외화 난에 따른 환율 및 물가 상승을 부추겨 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여름 대규모 수해까지 덮쳐 주민들의 어려움은 심해져만 갑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북한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서민들이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루 속히 방향을 돌이키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민생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극심한 추위의 겨울을 맞아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생존을 위한 물자들이 공급되도록, 이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도움의 손길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4년 12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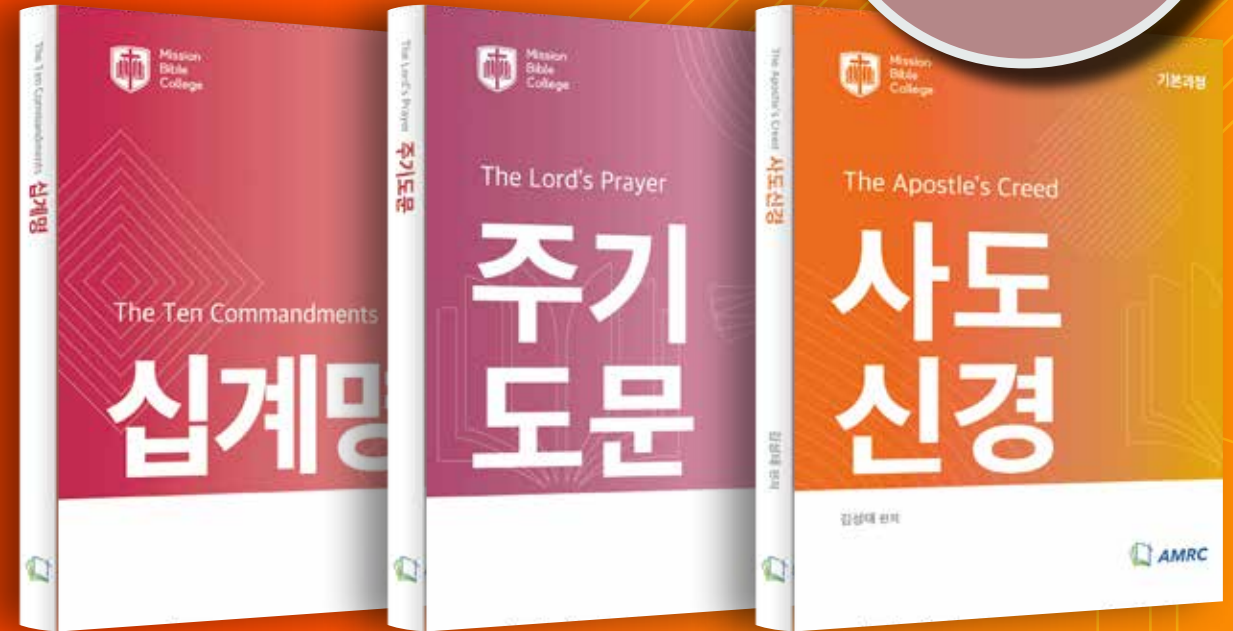
Mission
Bible
College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재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2025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의 북한선교 이해와 통일 준비에 도움이 되고자
북한선교학교를 개최합니다.
북한선교와 통일을 위한 일꾼으로 준비될 기회인
북한선교학교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주차	날짜	강의 주제	강사	형식
북한 선교를 위한 북한 이해	1	4월 7일	북한의 정치와 주체사상	정종기(고신총회 북한선교원)	온라인
	2	4월 14일	한국교회와 북한선교	하충엽(숭실대학교)	
	3	4월 21일	북한주민의 경제생활과 장마당	최설(북한대학원대학교)	
	4	4월 28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인권문제	강디모데(엔케이피플)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		
	5	5월 12일	북한의 종교와 교회	유관지(북녘교회연구원)	온라인
북한 선교 현장	6	5월 19일	북한의 종교 박해 실상	김바울(북한 지하교회출신 사역자)	온라인-대면 병행
	7	5월 26일	미디어를 통한 북한선교	성훈경(북방선교방송)	온라인
	8	6월 2일	북한선교에 있어서 국제협력문제	정인수(NKCCC)	
	9	6월 9일	DMZ 기도회		
	10	6월 16일	비즈니스를 통한 북한선교	이다니엘 사무총장(IBA)	
	11	6월 23일	국내정착 탈북민 선교와 통일목회	정형신 목사(뉴코리아교회)	온라인-대면 병행
	12	6월 30일	제삼국 북한선교 현장 이야기	현장사역자 1	
	13	7월 7일	제삼국 북한선교 여성사역 이야기	현장사역자 2	
	14	7월 14일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신자, 수료식	현장사역자 3	

일정 및 시간 4월 7일 - 7월 14일, 매주 월요일 저녁 7:30-9:30

진행 형식 모든 강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일부 강의는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됩니다.

회비 - 10만원 (DMZ기도회, 비전트립 별도)
- 신학생, 선교사, 목회자, 탈북민 그리고 이전에 오픈도어 북한선교학교를 수료하신 분의 경우 회비의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접수 오픈도어 홈페이지 (<https://www.opendoors.or.kr/>) “이벤드 및 공지사항” 메뉴를 통한 온라인 접수(접수기간: 2025. 2. 3 - 3. 31)

문의 한아론 선교사 (010-5107-8448)



한국 오픈도어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